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13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13  
2020 년 09 월 13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088412015](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088412015)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09 월 13 일

# 차례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정답인가] . . . . .	3
2. [의대생들의패배로부터얻을수있는전훈에관하여] . . . . .	3
3. [우리는산불을경고로받아들여야한다] . . . . .	4
4. [이희극을어찌바라봐야하는가] . . . . .	5

##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정답인가]

2020년 9월 10일, 고김용균노동자가사망한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특수고용노동자가숨지는사고가일어났다. 고김용균노동자가사망한지불과 2년이채지나기도전의참극이다.

물론이렇게반복되는책임의가장큰주체는안전을담보할수없는상태에서작업을할수밖에없는환경을만드는기업이다. 더군다나위험한일에는비정규직노동자를투입하여'인건비를절약'하려는기업의자세역시기업의책임이다.

하지만이러한기업의책임중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제정한다고하여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노동자를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그간의법들조차제대로지켜지지않는상황에서새로운법을만든다고하여그것이제대로시행되리라는보장이그어디에도없기때문이다.

기업이숨방망이처벌보다더무서워하는것으로노동자는노동자 스스로의안전을지켜야한다. 언제든또다시이러한비극이벌어질수있는작금의상황에서노동자를지킬수있는것은노동자의단결된힘뿐이다.

기계를멈추고, 물류를멈추고, 노동자가죽으면모든노동자는반드시그기업이가장무서워하는일, 그들에게이익을줄이는것따위가아닌극심한손해를끼친다는사실을일깨워줄때, 이모든비극은멈출수있을것이다.

<http://omn.kr/1ow0c>

## 2. [의대생들의패배로부터얻을수있는전훈에관하여]

결국의대생들이백기를들었다. 그냥패배도아니고완전히항복하고, 심지어의료계원로들이대국민사과까지해야하는완전패배, 무조건항복이다. 선배라는의사들이사실상완승을거두고, 의대정원확대와공공의료확충을저지한것에비하면웃음만나올뿐이다.

사실상예견된패배였다. 의협이정부와서명한이후, 이들은굉장히빠르게대중의관심바깥으로사라졌다. 페이스북과포털사이트댓글에간헐적으로출몰하여자기들끼리'좋아요'누르고댓글다는것이이들이눈에띄는전부였다. 이러면지는것도당연하다.

이들의패배는이들의명분이약하거나, 대중을설득하지못해서가아니다. 의협의집단무단휴진역시명분도없고, 대중의분노를산것은마찬

가지였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패배한 것은, 그들이 명분싸움, 정치적 행동 말고는 할 수 있던 것이 없다는 데에 근거한다.

의협이 아무리가 증스러운 요구를 내걸고, 선전도 못하고, 여론조직도 못해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의료산업 현장에서 그 산업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자기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영역을 멈춘다는 광기에 찬행동을 통해서 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이다.

우리가 의대생들의 패배에서 얻을 수 있는 전훈도 이와 같다. 투쟁을 명분으로, 정치력으로, 교섭술로 하려고 하지 말자. 산업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멈추어 내는 노동대중의 직접 행동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 3. [우리는 산불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이번 9월부터 시작된 산불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상자는 수십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남한 면적의 20%에 이르는 등 참담한 실정이다. 10여 년 전의 그리스 산불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호주 산불까지 산불의 규모와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있다.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대기 중의 수분이 부족해져 날이 건조한 8~9월 사이에 발생하는 데기 온 상승으로 인해 건조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후 변화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공통 과제임이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다. 탄소 배출 감소와 대체 에너지 모색 등이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무관심하며 최선의 경우에 조차 신경쓰는 척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그린 뉴딜은 탄소 배출량을 국제 기준의 50%에도 못 미치는 목표로 설정했으면서 그에도 못 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자원과 지로 인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며 기후 변화가 허구임을 짓고 있다. 성장률을 최고의 지수로 여기며 자본에 복무하는 이들의 논리로 이러한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 사익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그 하수인인 정부에게 현 상황을 개선하리란 희망은 품을 수 없다. 공해와 오염으로 얼룩진 환경을 바꿀 유일한 희망은 의회와 높은 신분들이 아닌 민중과 변혁에 있다. 반자본주의 투쟁과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은 분리될 수 없으며 전 세계적 위협에 맞서 세계와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중은 자본과 부패에 대항하여 인류의 미래를 지키고자 연대해야만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 4. [이 희극을 어찌 바라 봐야 하는가]

근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과정 중의 휴가 논란에 대해 논란이 매우 거세다. 그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지극히 국가주의적이다) 간의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민주당의 한의원에 의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의 후에 대해서 폭로한 당직병의 신상이 유포되는 등, 가히 희극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정치권에서 자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애당초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징집된 인민이 없었다면 이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며, 애당초 국가 권력의 존재와 군이라는 국가 권력이 독점 중인 폭력이 없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 논란에서 한 반도 남쪽에 거주하는 인민의 대변자를 참칭하는 양보 세력(민주당, 국민의힘)의 책동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 세력에서는 군 문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며 이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경한 보수 세력에서는 군 문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저지른 여당 세력에게 '국민'들이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하지 않던가? 정작 그들이 말하는 그 '국민'은 파쇼적 강제 징집 행태에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인민의 대변자라 참칭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작 그들 스스로의 존재가 인민을 탄압하고 강제 징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인민을 대변한답시고 '강제 징집'을 더 정당하게 했냐, 아니냐를 논할 수 있는가? 강력한 정부, 자본과 정부에 인민을 강제로 부역시키는 군, 그리고 이를 어떻게든 정당화하며 문제의 근본에서 눈을 멀게 하는 정치 세력에 맞서 인민 대중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대신 해줄 정당, 정부가 아닌 인민 스스로의 투쟁만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일굴 수 있다.

[http:// www.pressian.com/ pages/ articles/ 2020091314403091963](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314403091963)